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세계 기업에 주식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 안정성 제고와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트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률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수익 안정성 제고를 추구합니다.

- 주식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시장 상황, 투자자산군 별 리스크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및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69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43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263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7년 05월 02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5년 06월 29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08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24년 09월 27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 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중 환헤지 비중

94.6%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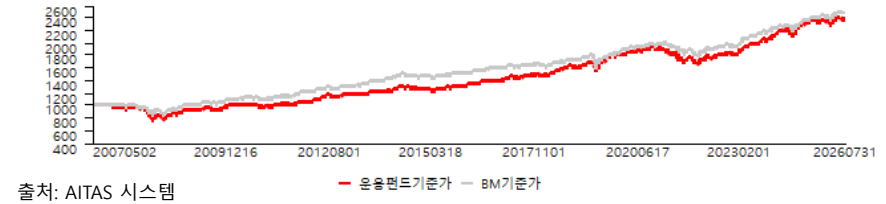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2.24%	0.35%	-0.81%	1.75%	16.64%	27.81%	23.27%	135.37%
클래스 C-P(퇴직연금)	-2.35%	0.04%	-1.40%	0.54%	13.90%	23.32%	16.12%	59.99%
클래스 C-P(퇴직연금)E	-2.32%	0.13%	-1.24%	0.88%	14.67%	24.58%	18.10%	57.85%
클래스 C-P2(연금저축)E	-2.32%	0.12%	-1.25%	0.84%	-	-	-	9.73%
벤치마크	-0.28%	1.46%	2.14%	5.59%	14.39%	25.38%	25.33%	148.52%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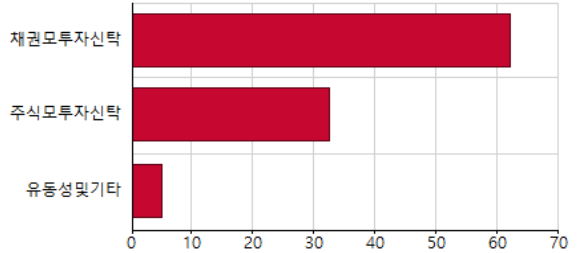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7월말 기준)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모투자신탁	62.3
2	주식모투자신탁	32.6
3	유동성및기타	5.1



<주식 국가별> - 피투자펀드 기준

순위	국가명	비중(%)
1	미국	65.9
2	일본	6.7
3	독일	5.7
4	영국	5.5
5	타이완	4.8
6	스웨덴	2.9
7	대한민국	2.9
8	네덜란드	2.1
9	아일랜드	2.0
10	스위스	1.4

<주식 업종별> - 피투자펀드 기준

순위	업종명	비중(%)
1	정보 기술	27.8
2	헬스케어	15.7
3	임의소비재	14.2
4	금융	13.8
5	산업	8.7
6	에너지	7.1
7	소재	5.2
8	통신 서비스	4.2
9	필수소비재	3.2

상위 보유 종목

종목명(7월말 기준, 주식모투자신탁 주식비중)	비중(%)
Eli Lilly & Co	5.5
NVIDIA Corp	5.2
Amazon.com Inc	4.4
Alphabet Inc	3.8
Johnson & Johnson	3.6

종목명(7월말 기준, 채권모투자신탁 채권비중)	비중(%)
국고02750-2812(25-10)	14.1
국고03500-2906(26-5)	8.6
삼성증권25-2	7.7
다올투자증권 20260615-92-8(단)	4.8
국고03375-3103(26-3)	4.7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2% (판매 0.69%)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86%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94% (판매 0.43%)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4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없음

후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글로벌 증시는 AI 관련 투자심리 약화로 반도체 및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지역 및 업종별 차별화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 우려와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반도체 및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으나, 월말 일부 대형 기술주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낙폭을 회복하며 보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AI 및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은행, 에너지 및 산업재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 차별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및 기술주 비중이 높은 영향으로 AI 관련 종목의 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종목의 약세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홍콩 증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의 AI 관련 종목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하며 강세를 보인 반면, 본토 증시는 국내 경제 및 시장 관련 우려와 반도체 종목의 약세로 부진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원자재 관련 업종의 높은 비중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펀드는 종목 선택 효과가 부진하였고, 섹터 배분 효과가 일부 이를 상쇄하였습니다. 섹터별로는 AI 관련 주 조정 과정에서 반도체 장비 및 반도체 관련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IT 섹터의 종목 선택 효과가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금융, 산업재, 소재 및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종목 선택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종목 선택 효과가 부정적, 일본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의 약세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7월 채권시장은 미·이란 전쟁 격화와 원/달러 환율 급등,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가 맞물리며 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6월 수출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대를 상회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경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금통위를 앞둔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가 더해지며 시장 약세가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25bp 인상했으며, 성장률과 근원물가 전망 상향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향후 추가 인상 여부는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미·이란 전쟁 격화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8월 연속 인상 우려가 재차 확대되었고, 국고채 금리는 3년물 3.953%, 10년물 4.445%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후 미국 6월 CPI와 PPI가 예상을 하회하고 미·이란 교전 중단 기대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월말에는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원/달러 환율 하락, WGBI 자금 유입이 더해지며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을 되돌리지 못하고 결국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대비 6.3bp 상승한 3.760%, 10년 금리는 19.2bp 상승한 4.262%로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단기적으로 AI 및 반도체 관련주의 급격한 조정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펀드의 핵심 보유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AI 및 반도체 주도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재조정되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밸류에이션과 포지션 규모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 테마 및 업종에 대한 집중도를 관리하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펀드는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이익 성장에 가능한 기업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인프라, 첨단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헬스케어 혁신 및 일부 금융업종 등 구조적 성장 테마에서의 투자 기회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량 기업 중심의 선별적인 종목 선택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 기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7월 채권시장은 미·이란 간 양해각서 파기와 군사적 충돌 재개로 국제유가가 반등하며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유가가 80달러대로 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ADR 발행 등 수급 요인에 힘입어 1,440원 수준까지 안정되면서 금리 상방 압력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당분간 채권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으나, 연속 인상 여부는 향후 경제지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 유지되며 정책 경로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AI 투자 확대 영향으로 예상보다 견조했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까지 더해지며 근원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8월 금통위와 정부 예산안을 통해 성장·물가 전망 및 국고채 발행계획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과 수급 경계감이 남아 시장금리가 의미 있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에 국고채 3년 3.65~4.00%, 국고채 10년 4.15~4.50%의 금리 레인지를 전망합니다.

크레딧 시장은 건축 경제심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크레딧 스프레드가 연중 최고 수준까지 확대됐으나, 7월 금통위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아진 절대금리와 확대된 크레딧 스프레드에 따른 캐리 매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의 단기자금 유입 등이 더해지며 우량 등급을 중심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향후 크레딧 시장은 높은 절대금리와 캐리 매력이 크레딧물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요인이거나, 시장 전반의 매수 기반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8월 금통위와 정부 예산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 경로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만큼 크레딧 스프레드의 가파른 축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국고채 금리가 안정될 경우 우량 등급과 단기물을 중심으로 크레딧 스프레드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크레딧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며 스프레드 축소세가 제한되거나 재차 확대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에 특수/국고 3y Spread 28~38bp, 은행/국고 3y Spread 27~37bp, 회사AA-/국고 3y Spread 62~72bp, 여전AA-/국고 3y Spread 68~78bp를 전망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